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학 <보기>에서 작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기>의 내용을 먼저 읽고, 그를 바탕으로 작품 안의 내용에 적용하며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인 풀이이다. 작품을 명시한 보기에 나온 정보는 작품에 쉽게 대입된다. 다음은 3번 문제에 딸린 <보기>이다.

<보 기>

1-1)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2)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보기>의 내용에서 (가)에 대한 정보를 뽑아보자.
 1-1) 화자는 이별한 뒤 혼자 남은 상태라고 한다. 그로 인해 내면의 슬픔을 간직한 상태지만, 아직 자신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1-2) '설목'이라고 따옴표해서 정보를 주었다. 살펴보니 (가)의 제목도 '설목'이다. 중요한 정보를 준 셈이니 집중하자. 이건 평가원이 낸 2022학년도 예비평가와도 비슷한 흐름이다. 그때도 제목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여튼 '설목'은 절대적 사랑을 표상한다고 한다. 화자는 이별했음에도 아직도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인 지향을 보인다. '설목'이라는 시어가 작품에 등장하면 '절대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짚어 놓아 읽자.

(가)

나의 마음 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습니다

⇒ 화자는 마음 속에 '설목'을 가꾸어왔다고 한다. 우리는 앞서 <보기>에서 '설목'이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임을 읽어냈다. 화자는 마음 속에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누구도 모르'게 키워온 것이다.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위는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 믿었던 어느 그 날,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음이여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백 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 맥락상 '최후'의 계절과 '떠나고 없음'은 <보기>에 드러난 '이별'을 의미하겠다. 이를 대입해서 읽어야 한다. 화자는 이별을 겪었음을 이미 <보기>에서 읽어냈기에 쉽게 대입이 가능하다. 또한 '미워하면서'라도 화자의 '옆에 남았다'라면 '고맙게' 거라며 아쉬워한다. 여기서 <보기>대로 다시 읽어 보자면, 이는 절대 화자가 상대방을 원망한 게 아니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절대적 사랑'을 꿈꾸기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상대방을 원망하다고 볼 수 없다.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악(雪岳)에 뺨는
 백엽보다도 희고 손 시린 이 나무는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 '물방울 소리'와 같은 시어에 특별히 의미부여하지 말자. <보기>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해석한 선지를 보고 정오판단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설악'과 '희고 손 시린 이 나무'이다. <보기>에서 준 부분이 바로 '설목'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설목'은 눈이 온 나무이기 때문에 '설악'에 손을 뺨는 '나무'는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을 의미할 것이다. (<보기>에 따른 해석)

당신이여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겨울밤

⇒ 화자는 '당신'이라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죽어도 좋'다고 한다. 화자가 외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에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 우리가 해석하지 말자. 선지의 내용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면 그걸 정오판단 하자.

- 김남조, 「설목(雪木)」 -

(나)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다.
 그렇게 명성이 높던 오동잎도 다 떨어지고
 저무는 가을 하늘에 인가(人家)의 정서를 품던
 굴뚝 보얀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색해졌다.

그런 ㉠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 두만강 건너는 이사꾼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 앉으니
 어머니 한 분만 오시잖아서 ㉢ 별안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눈 둘 곳이 없었다.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려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 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져 ㉣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익기도 어려워
 겨울 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이다.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돌며
 자리를 끌고 한 치 한 치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大地)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 질 무렵
 천장에서 왕거미가 내리고
 구석에서 귀뚜라기가 어정어정 기어 나온다.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각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 친구들의 손 한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다.
 - 김광섭, 「겨울날」 -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평가원은 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빙빙’을 의태어로 출제한 적이 있다. 이걸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선지이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가)시는 스스로 묻는 질문을 한 적이 없지만, 평가원스러운 선지는 맞다. 14학년도 수능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워딩이 나온 적이 있다.

③ (가)는 독백의 방식을 통해, (나)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대화의 방식’이라는 워딩은 평가원에 등장하지 않는다. 평가원은 ‘대화의 형식’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과 같은 워딩을 사용한다. 물론 ‘대화의 방식’이 ‘대화’에 가까운 표현일 가능성이 크지만, 평가원 입장에서 ‘대화의 방식’이 명확하게 ‘대화체’인지, ‘대화’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평가원도 쓰는 좋은 선지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평가원도 쓰는 좋은 선지다.

2. (가), (나)를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학년도 예비평가를 상당히 집중해서 흥내낸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과하게 선지 내부의 의미를 확장해서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선을 제대로 흥내내지는 못한 걸로 보인다.

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가)의 ‘시냇물마저 여위는’ 것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조응한다고 볼 수 있겠군.

⇒ 우선 (가)에서 ‘가을’이 ‘겨울’로 넘어간다는 것은 워딩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선지에서 ‘만물이 쇠락’한다는 말을 보고 ‘진짜 그런가?’ 라고 찾아 본다면 ‘만물이 쇠락’한다고 볼 근거는 작품 내에 특별히 없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정적인 표현이기에 ‘쇠락’이라는 것에 주목한다면, 뒤의 내용은 충분히 쓸쓸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평가원을 따라가지 못한 선지다.

②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가)의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것은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정합성에서 무리가 없는 선지다.

③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내적 성숙’이라는 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틀린 선지인데, 평가원도 ‘근거 없어서 틀린 선지’를 내곤 하기에 이 역시 큰 무리는 없는 선지다.

④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나)의 '얼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정합성에서 무리가 없는 선지다.

⑤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견뎌 내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1번 선지와 유사한 의미로 안 좋은 선지다.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하지 않으면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가 고난인지 아예 알 수 없는데,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는 워딩보다 좋은 워딩을 썼으면 더 명확했을 것이다. 가령 '겨울의 추운 속성이 주는 고난적 특색에 주목할 때' 라고 바꿨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 보기는 함께 읽었으니 따로 설명 안 하겠다.

① '나의 마음 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 가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정합성에서도 무리가 없고, 좋은 선지이다.

②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정신적으로 승화'라는 파트가 틀려서 답일 것인데, 이는 평가원보다 불명확하다. 평가원은 현대시에서 작년부터 <보기>와 충돌하는 내용으로 오답선지를 구성해왔다. <보기>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오답 선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③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설악에 뻗는'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보기>의 내용을 너무 대충 활용한 선지다. '나뭇가지'가 '위로 설악에 뻗는' 것을 <보기>의 '지향과 대응할 것이었다면 '영원하고 순결'이라는 워딩을 건드려줬으면 좋을 것이었다. '시련'은 <보기>에 안 나온 워딩이다. 차라리 '이별로 인한 시련'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보기>를 활용한 워딩이었을 것이다.

④ '백엽보다도 희고 손 시린' 나무의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겠군.

⇒ 이 파트가 바로 <보기>에서 설명한 '설목'에 설명이기에, '절대적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선지였다. 제목을 활용한 부분인 만큼 잘 낼 수 있는 선지였는데, 매우 아쉽다. <보기>에서 작품 내 특정한 시어에 대해 아예 대놓고 따옴표를 주며 설명한 경우는 21학년도 9월 모의고사가 있다. 좋은 예시이니 잘 공부해 두면 좋다.

⑤ '당신'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틀린 선지는 아니지만, <보기>에 나온 '절대적 사랑'은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목'에 대해 설명한 파트에 이어져야 한다.

4. (나)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문제였다. 한 선지당 하나의 근거가 명확하다.

① ㉠을 통해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다.

⇒ '실생활 = 김장' 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하다.

② ㉡을 통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삶의 터전이 흔들 = 이사' 라는 부분에서 명확하다.

③ ㉢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부재 = 허전'이라는 점에서 명확하다.

④ ㉣을 통해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 '구심점 = 모임' 이라는 점에서 명확하다.

⑤ ㉤을 통해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시적 설명에서 주체를 전환한 경우는 15학년도 수능B형 현대시 45번 문제 1번 선지가 그러하다. 잘 낸 문제가 맞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유언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의사 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표시 행위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1-3)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1-4)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1-5)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 법률 행위라는 개념의 정의와 그 예시가 제시되었다. 지문의 초반에 제시된 정의는 핵심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개념이 다시 언급되면 정의를 생각하며 읽자. 법률 행위는 말 그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는데,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의 필수적 요소라고 한다.

함께 제시된 예시에 개념의 정의를 적용하며 읽어 보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유언이나 계약 등을 법률 행위의 예시로 들었는데, 죽기 전 재산 분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유언을 남긴다면 상속에 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테니 유언이 법률 행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또, 어떤 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맺으면 권리 관계의 변동 등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테니 계약이 법률 행위라는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참고로 법률 행위의 정의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제시된 바 있으므로, 기출을 충분히 학습했다면 이 지문의 소재가 반갑게 느껴졌을 것이다.

1-2) 1-1에서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의 필수적 요소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의사 표시라는 개념의 정의가 제시되었다. 1-1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를 고려하면 1-2에 제시된 의사 표시의 정의를 부담 없이 납득할 수 있다. 이때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심지어 침묵 등의 수단으로도 의사를 표시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보다. 여러 수단이 나열되었으므로 선지 하나 정도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1-3)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는데, 표의자라는 개념의 정의를 안긴문장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는 것일 테니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길어진 문장은 단순히 한 문장처럼 낱림으로 읽지 말고, 여러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짚어 가며 읽자.

표의자의 진의, 즉 진짜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異論, 다른 의견이나 주장)의 여지가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표의자의 진짜 의도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다.

1-4)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표시된 의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표시된 의사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므로 법률 행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겠다.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을 표시 수령자라고 정의한 것도 짚고 넘어가자.

1-5) 1-4에서 언급된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의의가 제시되었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쪽의 의사를 통해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지를 확정한다는 정도의 의미겠다. 법률 행위의 해석을 통해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지, 유효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가 보다.

2-1)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2)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2-3) 그리고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4)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5) 한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6) 그리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칙을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2-1) 1문단에서는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 등의 개념을 정의한 뒤,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 의사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 문단인 2문단의 첫 문장에서는 법률 행위의 해석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지 말고,

법률 행위의 해석으로 주제가 좁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과 합리성에 대해 논하려나 보다.

2-2)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으로 법률 행위의 목적과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표시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행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다.

2-3) 해당 분야의 관습도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2-4) 2-3에서 관습을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2-4에서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습에 따른다고 한다. 관습에 따르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다면 관습을 따르지 않는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의사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없다고 한다. 여기서 효력이 없다는 말은 1-5에서 언급된 '법률 행위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강행 규정이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겠다. 좀 더 구체화하자면 관습과 충돌하는 강행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관습이 아니라 강행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의 정의가 안건문장의 형태로 제시된 것도 짚고 넘어가자. 말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적용되는 규범이라서 강행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강행 법규라는 개념이 정의된 적 있으니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한 것일 수도 있다.

2-5) 법률 행위 해석 기준으로서의 관습과 법 규범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강행 규정은 관습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우선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임의 규정은 따로 관습이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임의 규정은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19학년도 6평에 등장한 적 있는 개념이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니, 몰랐다면 이 기회에 챙겨 두자.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2019.06]

2-6) 법률 행위 해석 기준 중 하나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3-1)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3-2)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 밝히는 해석으로,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다. 3-3) 계약의 경우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표시 행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표의자의 진의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3-4) 이 경우에는 진의와 다른 의사 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다. 3-5) 그리고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3-1) 2문단에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에 대해 논했는데, 3-1에서는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이어 제시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3-2) 3-1에 언급된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 자연적 해석의 정의가 제시되었다.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 행위, 즉 표시된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 중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한다.

3-3) 자연적 해석의 한 예가 제시되었다. 표의자의 진의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시 수령자가 이해한 바가 표의자의 진의와 합치한다면 표시 행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여기서 표시 행위 본래의 목적이란, 1-2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이나 2-2의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시 수령자의 이해가 표의자의 진의와 합치하면, 법률 행위의 내용, 즉 해당하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확정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다.

3-4) 이 경우, 즉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진의와 다르게 표시된 의사가 진의를 해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보다. 이러한 원칙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정의했는데, 잘못된(오誤) 표시가 진의를 해하지 않는다(무無)는 것이겠다.

3-5)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말이나 글 등의 유언, 즉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유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겠다.

4-1)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

이다. 4-2)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4-3)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해석하지는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하여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4-4)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한다. 4-5) 그런데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표의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4-6)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의와 다를 경우에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4-7)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의 중요한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4-1) 3문단에서 소개된 자연적 해석은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했는데,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라고 정의했다. 표의자의 진의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다.

4-2)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즉 표시 행위가 진의와 일치할 것이라고 믿은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범적 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고 한다. 표시 수령자는 표시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진의를 파악할 것이므로 납득할 수 있다. 다만 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직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4-3) 규범적 해석에서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이해한 내용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는지를 중시한다고 한다. 즉, 상식선에서 미땅히(=규범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규범적 해석이라고 명명된 것을 납득할 수 있겠다.

4-4) 규범적 해석의 한 예가 제시되었다. 표의자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로 계약서의 내용, 즉 표시된 행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에 대하여, 비록 계약서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더라도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한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곧 표의자의 진의에 해당하리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5) 그런데 4-4)에서와 달리,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다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규

범적 해석보다는 표의자의 의사, 즉 진의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또 표시 수령자가 진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의 과실 때문이라면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한다는데, 이는 표시 수령자가 충분히 진의를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의미보다는 진의를 인정하는 것이겠다.

4-6) 규범적 해석으로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인정하게 되면,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한다.

4-7)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게 확정되어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표의자는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해당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 효과는 의사 표시로 발생되므로, 의사 표시를 취소하면 법률 효과가 무효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사 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중대한 과실이 대체 무엇인지, 일반적인 과실과는 어떻게 다른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지문에서 언급한 정도라면 이해하면 충분하다. 중대한 과실과 그렇지 않은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은 이상, 문제에서 특정 행위가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를 묻는 등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5-1)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것으로 ㉠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5-2)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 행위에서 할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행해진다. 5-3)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보충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4) 이때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 행위의 흠결이 되는 것이다.

5-1) 보충적 해석의 특성과 정의가 제시되었다.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은 법률 행위의 성립이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해석이었는데, 보충적 해석은 이미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된다고 한다.

5-2) 1-1)에서 계약이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고 하였는데, 보충적 해석은 다양한 법률 행위 중에서도 주로 계약에서 행해진다고 한다.

5-3) 보충적 해석의 한 예가 제시되었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적 해석이 행해진다고 하니, 계약 체결은 법률 행위의 성립으로 볼 수 있겠다. 계약 체결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계약

을 보충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한다.

5-4) 5-1에서 보충적 해석은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5-3에서 든 예시 중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계약의 흠결이겠다.

6-1) 가령, 서로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과 을이 서로의 병원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고 병원을 옮겼다. 6-2) 그 후에 을이 그 교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갑이 교환 계약의 유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을이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청구한 사안이 있다고 하자. 6-3) 이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갑과 을이 교환 계약 당시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곧바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전체 계약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다. 6-4)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 당사자들이 교환 계약 이행 완료 후 2~3년 내에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복귀 금지에 합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갑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다. 6-5) 그렇다면 이 판결은 보충적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1) 보충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 주지(예시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예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이해하자. 갑과 을은 서로의 병원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법률 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법률적 개념의 이해를 돕는 것은 법 제재 지문의 전형적인 서술 방식인데, 이 경우 한 문항 전체가 예시 한두 문단과 직결되기도 한다. 당장 2021학년도 수능의 28번 문항도 그러했고,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30번 문항도 그러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 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2020.09

2020.09_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2021.11 [A]**

2021.11_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ㄱ	ㄴ	ㄷ
①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대금 지급
②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제공
③	급식 계약 승낙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④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⑤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대금 지급

6-2) 을은 6-1의 병원 교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갑은 교환 계약이 유효하다며 을이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서 개원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이처럼 법 제재 지문에서 양측의 주장이 부딪치는 상황이 등장하면 주장의 주체와, 각각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하면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한다. 2016학년도 수능 B형의 관련 부분을 인용한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16.11B

6-3) 법원은 갑과 을이 계약 당시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오고자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5-4에서 언급된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즉 법률 행위의 흠결이다. 법원은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 중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이 목적을 보호하는 보충적 해석을 내놓을 것이다.

6-4) 5-4에서 보충적 해석은 계약 체결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당사자들, 즉 갑과 을이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오고자 할 것을 예상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즉, 병원 교환 계약의 흠결을 보충한 것이다.

6-5) 이 판결을 흠결이 있는 계약을 성립 이후에 보충한 것이므로, 당연히 보충적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률 행위의 해석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밝히고, 해석 기준과 해석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1-4-1-5에서 법률 행위의 해석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있으며, 2문단에서 해석 기준을, 3-6문단에서 해석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들을 제시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들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각 방법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③ 법률 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에 적용한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 법률 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사례를 소개한 것도 맞고, 그 사례에 해석 방법이 적용된 것도 맞지만,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④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해석 방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밝힌 것은 맞지만, 해석 방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법률 행위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을 서술하고, 그 해석 기준이 발전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법률 행위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을 서술한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의 발전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민법에서의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1-1에서 법률 행위가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보충적 해석은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해석 방법이다.
⇒ 5-1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③ 언어적 표현 없이 몸짓만으로도 법률 효과를 지니는 의사가 표시될 수 있다.
⇒ 1-3의 ‘말이나 글’은 언어적 표현,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은 몸짓에 해당한다. 표시 행위에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1-5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⑤ 자연적 해석에서 적용되는 오폭시 무해의 원칙은 표의자의 진의보다 표시 행위를 중시한다.
⇒ 3-2에 따르면, 자연적 해석은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다. 또, 3-3에서 의사 표시가 표의자의 진의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표의자의 진의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오폭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따라서 오폭시 무해의 원칙은 표시 행위보다 표의자의 진의를 중시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일정한 기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문의 2문단에서는 다양한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나열되었는데, 이처럼 한 문단 내에서 같은 층위의 정보들이 나열될 경우 한 문항의 (거의) 모든 선지가 한 문단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2018학년도 수능 28번 문항,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19번 문항, 2019학년도 수능 42번 문항 등이 그 예시이다. 모든 정보를 암기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갖자. 다만 **항상** 한 문제로 구성되는 것만은 아니니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자주** 그렇다는 것이다.

- ①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없다.
⇒ 2-4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② 법률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목적은 기준이 될 수 있다.
⇒ 2-2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③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기준이 될 수 있다.
⇒ 2-6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④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임의 규정은 기준이 될 수 있다.
⇒ 2-5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⑤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기준이 될 수 있다.
⇒ 2-4에서는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관습이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8.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가) A가 B에게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하여 B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가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 대상을 앵두나무로 잘못 표기하였다. A와 B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C는 금 100g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100g의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100돈(1돈 = 3.75g)을 판매하겠다고 잘못 말하였다. C와 D는 C의 말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가)와 (나)에서 판매자는 표의자, 구매자는 표시 수령자이다.

- ① ㉠의 경우, (가)의 A가 매매 대상을 자두나무라고 주장하고 B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A의 진의대로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겠군.
⇒ A가 매매 대상을 자두나무라고 주장한다면, 표의자의 진의는 앵두나무가 아니라 자두나무를 매매하는 것이다. 표시 수령자인 B가 이에 동의하여 의사가 합치된다면,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의자 A의 진의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의 경우, (가)의 앵두나무라는 문구나 (나)의 100돈을 판매하겠다는 C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의를 밝혀야 한다고 보겠군.
⇒ 앵두나무라는 계약서의 문구나 100돈을 판매하겠다는 말은 의사 표시의 일종이다. 자연적 해석은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므로 적절하다.
- ③ ㉡의 경우, (가)의 A와 (나)의 C가 의사 표시의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입증하면 A와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겠군.
⇒ 4-7에 따르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성립하므로, 만약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문에 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단언할 수는 없다.)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조차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으니, 이를 판단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어떤 행위가 중대한 과실인지를 못박아줄 것이다.
- ④ ㉡의 경우, (나)의 C가 적정한 값이 아닌 가격에 100돈의 금을 판매하기로 한 말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겠군.

⇒ 4-7에 따르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의 경우, (나)의 C가 계약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D가 과실로 C의 진의를 알지 못했다면 C의 진의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겠군.

⇒ 4-5에 따르면 표시 수령자 D가 표의자 C의 진의를 알지 못한 것이 D의 과실 때문이라면, 표의자 C의 진의를 인정하는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9. [A]에서 ㉡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이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계약
- ② 갑과 을이 일정 기간 후에 서로 다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한 합의
- ③ 갑이 종전의 병원이나 그 부근에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을의 청구
- ④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일정 기간 복귀하지 않기로 한 합의
- ⑤ 계약 당시 상대방이 곧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약

⇒ 5-4에 따르면,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 행위의 흠결에 해당한다. 6-3에 따르면 [A]의 병원 교환 계약에서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은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계약이 바로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이다.

10. 문맥상 ㉢ 밝히는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3-2)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 밝히는 해석으로,

위의 맥락에서 '밝히다'는 '(사람이 모르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따져서 드러내거나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정답을 찾기 위해 이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관념적인 의미에서, 어떤 내용이나 의사를 밝힌다는 정도의 용례를 선지에서 찾으면 된다.

① 갑자기 정전이 되어 우리는 촛불을 밝혀 놓았다.
⇒ 물리적으로 밝게 한다는 뜻이므로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다. 사전적 의미는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다'이다.

② 어젯밤을 꼬박 밝혀 회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 사전적 의미는 '(밤)을 목적어로 하여) 자지 않고 지내다'이다. 밤을 새운다는 정도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다.

③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눈을 밝혀 살펴보았다.
⇒ 사전적 의미는 '눈, 신경, 두뇌 따위의 작용을 날카롭게 하다'이다.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다.

④ 그 사건의 전모를 밝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밝힌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의 의미와 유사하다.

⑤ 내 동생은 단 음식을 너무 밝혀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다.
⇒ 사전적 의미는 "이다.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곱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일연, 「선율 환생」 -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흥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첩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러 염라국을 돌아드니 철성(鐵城)을 돌렸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흑좌흑립(或坐或立)하였더라.

그러구러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뿔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흥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 왈,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중략)

그러구러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흥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어니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쉼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말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직고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 읍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될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무리 없는 선지이다. 그러나 요새 이런 식으로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꼭 짚어서 물어보는 경우 평가원은 [A]를 제시해서 그 안에서 물어보기도 한다. 그렇게 문제를 냈다면 더 평가원스러웠을 것이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여 소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인물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다만 ... ‘대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가자면, 아직까지 평가원이 ‘대결’이라는 선지에 대해서 정답으로 기록한 적이 없다. ‘대결’이라는 워딩에 대해 필자가 잘못 알고 있나 궁금해서, 여러 교수님들께 여쭙보거나 문학 개론서책을 뒤져서 직접 알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인물간의 대결’이 맞다. 평가원이 왜 답으로 선정 안 하는지는 필자도 잘 모르겠다. 그냥 통계적 사유만 알아가라.
- ④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한 가지 공부해가자는 의미로 알려주자면, 두 가지의 무엇이 등장하면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다. 앞의 얘기가 맞다면, 뒤의 내용은 무조건 맞는 셈이다.

12.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근거가 명확한 좋은 문제이다.
- ① 무덤 속에서 살아난 후에 혼자의 힘으로 무덤 밖에 나올 수 있었군.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 ②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군.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 ③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군.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 ④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에게 표출했군.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 ⑤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군.
⇒ 근거가 있는 좋은 문제였으나, 너무 쉬웠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 ② ㉡: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 ③ ㉢: 설홍이 저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 ④ ㉣: 설홍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근거가 있지만 .. ‘청산’이라는 워딩을 고전시기에서 많이 보았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평가원이었으면 ‘청산’이 있는 파트를 아예 밑줄로 안 냈을 것이다.
- ⑤ ㉤: 설홍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14.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직접 지문의 부분으로 돌아가서 푸는 문제를 종종 낸다. 아주 좋은 문제고, 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전소설 '조웅전'을 연계해서 배우면 좋을 것이다.

①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설홍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② 염라대왕은 설홍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 틀린 선지로 기능하는 정답선지인데, 근거가 제법 좋아서 이건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염라대왕이 설홍에게 '허물 없게 하라'라고 했을 뿐이지 그가 허물없이 살 수 있다고 본 적은 없어서 틀린 선지이다. 즉, 선지의 워딩이 지문 안에 있어서 수험생이 얼추 그 근거로 돌아가지만, 그 근거가 오히려 선지를 틀리게 했다는 것이다. 평가원이 이런 류의 선지를 낸 적이 있기에 충분히 배워갈 게 있는 선지이다.

③ 설홍은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④ 설홍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열매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⑤ 설홍과 글로 화답한 선녀는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을 지니고 왕년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소(話素)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설홍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설홍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①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② (나)에서 저승사자가 이십 전 여아를 저승으로 잡아 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여아'의 죄를 고려할 때, 요즘 이런 문제가 나와도 되는 건가 싶다. 성평등 관련해서 이슈가 크기에 평가원도 되도록 이런 부류는 안 건드리는 편인데.. 물론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다.

③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설홍이 이십 전 여아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근거가 충분한 선지이다. '구체성'이라는 <보기>의 내용 활용 정도가 아주 좋다.

④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설홍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보기> 파트가 지문의 다른 부분과 연결됐기에 틀린 선지이다., 고전소설에서 평가원이 이렇게 자주 낸다. 특히 작년 평가원 문제들과 유사하다.

⑤ (가)에서는 논 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나)에서는 천도를 앓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 온 인물이 있는 것은, 도덕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째뽕하고 좋지 않은 선지다. '도덕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은 <보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평가원은 <보기> 안의 정보를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선지는 <보기> 안의 '악업'이라는 단어 하나만 억지로 활용한 느낌이다. <보기>를 길게 짜냈으니 제법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1)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앎,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1-2)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4)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1-5)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1) 서구 철학 전통이 지식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서구 철학 전통이 파악한 지식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겠다. ‘전통’이라는 표현에서 이 정의가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1-2) 1-1에서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당화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겠다. ‘어쩌다 참인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은 참인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문제에 제시된 예시를 인용하자면,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는데 실제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였을 경우가 바로 어쩌다 참인 믿음이었다. 실제로 참이고, 그것을 믿었지만, 충분한 이유나 근거로 정당화되지 않은 것이다.

1-3) 1-2에서 언급된 **어쩌다** 참인 믿음은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믿음이겠다.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어떤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1-4) 전통적인 인식론은 서구 철학 전통을 따르는 인식론일 것이므로, 지식이나 앎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할 것이다. 정말 1-4를 확인해 보니 이런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제가 실제로 참일 것, 인식 주체가 명제를 믿을 것, 인식 주체가 그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에 각각 대응한다.

1-5) 1문단 전반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1문단 전체가 사실상 1-1의 내용에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다. 2-2) 다음의 예를 통해 그가 ㉡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 보자. 2-3)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2-4)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 대 0이다. 2-5) 이때 ㉢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 2-6)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다. 2-7)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2-8)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2-9)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2-10)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2-1) 1-1에서 예측했던 대로 서구 전통 인식론, 즉 서구 전통 철학이 앎을 파악하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게티어라는 사람이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전통적 조건이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2-2) 서구 전통 인식론에 대한 게티어의 반론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가 제시되려나 보다.

2-3)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왜 기존의 방식으로 앎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더 읽어 보자.

2-4) 내가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은 것이나,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 대 0이라는 것은 지식의 조건 중 각각 믿음과 참에 대응된다. ‘믿은’이라든가 ‘실제로’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지문 초반부에 제시된 지식의 정의를 상기하면서 글을 읽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감이 좋은 학생이라면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라는 부분이 정당화에 대응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를 몰랐어도 괜찮다.

2-5) 이 문장이 2-4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2-5에 와서는 2-4의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가 정당화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나의 인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므로, 서구 전통 인식론에서는 이를 지식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 세 조건이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게티어의 반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믿음이 알고 보니 지식이 아닐 것이라는 내용이 뒤이어 나올 것이다.

2-6) 나는 환호성을 듣고서 카페 안에 있는 다수의 한국인

이 한국이 골을 넣은 것을 보고 지른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 믿음을 정당화했던 것인데, 사실은 카페에서 나온 환호성이 아니라, 카페 건물 위층 사무실의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다고 한다.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했지만, 이는 사실 잘못된 추론에 근거한 어쩌다 참인 믿음이었다.

2-7)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지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예시라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게티어의 반론을 잘 이해할 수 있다.

2-8)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말은 곧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면서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말이겠다.

2-9) 게티어에 의해 지식에 대한 전통 서구 인식론의 정의가 엄밀하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로, 인식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당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한다. 1-1에서 예측했던 대로 서구 전통 인식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2-10)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이 새로운 정당화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아마 다음 문단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다.

3-1)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3-2) 가령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과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3-3)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 3-4) 이때 인식 주체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3-5) 반면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3-6)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하자. 3-7) 외재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3-8) 그래서 ㉠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도 했다. 3-9)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지식 개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론적 관점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3-1) 내재주의는 2-10에서 말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

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한다고 보는 쪽인가 보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직은 이 입장이 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한다고 보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더 읽어 보자.

3-2) 예시를 통해 내재주의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려나 보다.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의 이유, 즉 정당화 근거가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라고 한다. 인식 주체 (=나)의 어떤 믿음은 다른 믿음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의 정당화 근거는 인식 주체에 내재한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므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3-3) 3-2에서 생각했던 대로,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는 내재주의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3-4) 인식 주체의 어떤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 즉 '다른 믿음'에 대해 인식 주체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재주의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 문장은 선지에서 활용되지도 않았고 다른 문장의 이해를 돕는 문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평가원 지문, 특히 모의평가가 아닌 수능 지문에서는 이런 문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평가원스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3-5) 외재주의는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외재적이라고, 즉 인식 주체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인가 보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인식 주체와 무관하게 외재하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6) 예시를 통해 외재주의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려나 보다.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하는데, 외재주의에 따르면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 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3-7) 예상했던 대로,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는 외재주의자들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3-8) 외재주의자들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재주의자들 중 어떤 이들은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고 한다. 내 앞에 놓인 책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통해 알아낸 사실과 내 앞에 책이 있다는 믿음 사이에는 강한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

3-9)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는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한 정

당화 요건을 각자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 올바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한다.

(나)

1-1)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거론한다. 1-2) 격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理)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1-3) 치지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앎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1-4)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앎이 있지 앎이 없어서 격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1-5) 이것이 바로 유가 철학의 전통적인 격물론이다.

1-1) (가)는 서구 전통 인식론이 정의한 지식의 조건과 그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두 입장에 대한 글이었다. (나)는 동양의 인식론에 대해 다루나 본데, 동양의 인식론에서는 주자의 '격물'과 '치지'라는 개념을 중시하나 보다.

1-2) 격물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었다. 안긴문장의 형태로 '리'의 정의가 제시된 것도 놓치지 말자.

1-3) 치지라는 개념이 정의되었다.

1-4) 앎에 대한 주자의 관점이 제시되었다. 주자는 사람의 마음에 본디 앎이 있어서,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까지 이치를 탐구하는 격물을 통해 이 앎을 밝혀내면, 앎에 미진함이 없는 치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한다.

1-5) 앎에 대한 주자의 인식을 유가 철학의 전통적인 격물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지문에서처럼 앎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겠다.

2-1)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는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2-2) 당초 퇴계는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物格)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2-3)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2-4)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2-5)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6)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2-7)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2-8)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했다. 2-9)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리가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10)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

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11) 이것이 이른바 '리자도(理自到)'이다.

2-1) 퇴계는 주자의 영향을 받았고, 기본적으로는 주자의 입장을 계승했다고 한다. 주자의 입장이라면 1-4에서 말했던, 격물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는 입장이겠다.

2-2) 처음에 퇴계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여기서 물격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제시된 것도 놓치지 말자. 격물을 추구한 결과, 즉 사물에 나아가 극한까지 사물의 리를 탐구한 결과로 물리, 즉 사물의 이치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물격이라고 정의했다.

2-3) '물에 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다.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라고 한다. 물리를 극한까지 탐구하면 마음이 대상에 이르러, 비로소 치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겠다.

2-4) 퇴계가 기본적으로 주자의 입장을 계승했다고 하였는데,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이해하는 당초의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고 한다.

2-5) 그런데 당초에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 즉 마음이 물에 이르러 리를 파악한 경지로 보았던 것과 달리, 만년에는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2-6) '물이 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마음이 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물에 격한'다는 것은 마음이 물에 이르러 리가 파악된다는 것인데, '물이 격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려 할 때 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르러 리가 파악된다는 것이겠다. 도식화해 보자면

'물에 격한' 것 : 마음 → 물

'물이 격한' 것 : 마음 ← 물에 내재한 리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2-7)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은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는 당초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겠다. 이러한 당초의 해석과 달리 물격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해석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리에 다가간다고 보지 않는가 보다.

2-8) 그런데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해석에서 '리가 이른다는 것은,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리가 이른다고 하는데, 이

는 ‘물이 격한다’는 해석에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려 할 때’를 말하는 것이겠다.

2-9) ‘물이 격한다’는 해석에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덧붙인 까닭은, 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에 이른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리가 물리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10) 리가 직접 마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덧붙인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다.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리가 마음에 다가온다는 것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2-11) 격물을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리가 마음에 다가오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해석을 ‘리자도’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도는 이를 도(到)로, 도달한다고 할 때의 ‘도’인데, 이를 알았다면 리가 스스로(自) 마음에 이른다, 도달한다는 것을 리자도라고 일컫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를 몰랐어도 위의 설명과 연결지어 리자도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1)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3-2)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3-3)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3-4) 따라서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3-1) 2문단 후반부의 논의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해야 리가 마음에 다가오고, 또 리가 물리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제한을 말하는 것이겠다.

3-2)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 역시, 사람이 인식하고자 한 사물에 내재하는 리만이 마음에 다가온다는 것이겠다.

3-3) 2문단 후반부터 3-2까지의 논의를 비연하고 있다.

3-4) 퇴계는 기존에는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에 이른다고 보았지만, 만년에는 인식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고자 할 때 대상도 인식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마음에 이르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대상 모두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겠다.

1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금까지 평가원이 (가)/(나) 통합 지문을 출제한 시험은 2021학년도 6월·9월 모의평가, 2021학년도 수능, 2022학년도 예비평가로 총 4번이다. 4번 모두 통합 지문의 첫 문항은 내용 전개 방식 관련 문항이었는데, 이 문항은 (가)의 세부 정보를 묻고 있다. 20번 문항의 ㉠, ㉡ 정도가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①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 게티어는 지식의 전통적 필요충분조건인 정당성, 참, 믿음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문에서 든 예시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지식이 아닌 경우가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세 요소를 갖춘다고 해서 지식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정당화에 대한 다른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세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②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 2-3~2-7에서 제시한 예시가 바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를 보여 준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그 믿음을 정당화해 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

⇒ 3-3에 따르면 적절하다.

3-3에서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라고 한 것은 ‘모든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라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에 대하여도 그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므로 적절하다.

④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

⇒ 2-8~2-9에 따르면 적절하다.

⑤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3에 따르면 적절하다.

17.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는 서구 전통 인식론에서 지식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야 한다.

<보 기>

- 인식 주체: S
- 명제 P: 교실 분필 개수는 13개이다

①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있다.

⇒ **짐작**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실제로 참이고, 짐작했다고 하면 믿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정당화되지 않았으므로 **앎**이 아니다.

②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 **앎**의 세 가지 요건 중 믿음이라는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앎**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 **앎**의 세 가지 요건 중 정당성이라는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앎**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도 13개이어야 한다는 요소가 필요하다.

⇒ **앎**의 세 가지 요건 중 참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 **앎**의 세 가지 요건 중 믿음만을 충족하면 **앎**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다.

18. <보기>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이다.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주자가 “리(理)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보면,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라는 말을 보면,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리(理)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①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앎이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년에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군.

⇒ (나)에 따르면 퇴계는 만년에 리가 마음에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선지 후반부의 사실 관계가 틀렸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② 퇴계는 만년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군.

⇒ <보기>에서 퇴계는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는 주자의 말에서,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해석을 이끌어 냈다. 이는 (나)에서 다른 퇴계의 관점 중 만년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본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적절한 추론이다.

③ 주자는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되었겠군.

⇒ (나)나 보기를 근거로, 주자가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선지 전반부는 제쳐놓고 보더라도, 퇴계는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리가 이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④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룬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겠군.

⇒ (나)의 2-2~2-4에 따르면, ‘물에 격’한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는 선지의 전반부는 적절하다. 그러나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근거로 하는 것은, 물격이 ‘물에 격’하는 것이라고 보는 퇴계의 초기 주장보다 ‘물이 격’하는 것이라고 보는 퇴계의 만년의 주장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⑤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군.

⇒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긴 것도,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한 것도 사실이다. 또, 퇴계가 만년에는 리가 마음에 작용할 수 있다고 여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의 2-8~2-9에 따르면, 퇴계는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선지 중반부의 사실관계가 틀렸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19. ㉠ 어떤 외재주의자의 입장에서 ㉡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외재주의자이다.

① ㉠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은 지식이 아니다.

⇒ 3-6~3-7에 따르면 외재주의자들은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를 가져야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예로 내가 내 앞에 존재하는 책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앞에 책이 있다’는 명제를 믿는 상황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라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는 카페 안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다수의 한국인이 있다는 등의 정보를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그러할 것이라고 추론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외재주의자라면 ‘내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은 지식이 아니다.

⇒ ①번 선지 해설을 참고하면, 외재주의자들은 ‘나’의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지식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나’는 환호성을 듣고서 카페 안에 있는 다수의 한국인이 한국이 골을 넣은 것을 보고 지른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 믿음’을 정당화했던 것인데, 실제로 환호성은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실과 믿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③ ㉠에서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 ②번 선지 해설을 참고하면, 승진 축하연에서 환호성이 나왔다는 사실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내 믿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반드시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지 않았음에도 골을 넣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한국이 골을 넣었음에도 골을 넣었다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 입장에서 ㉠은 지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므로, 실전에서는 ③~⑤번 선지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도 소거할 수 있었어야 한다.

④ ㉠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 ‘내 믿음’이 오해에 의한 것도 맞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것도 맞지만, ①번 선지 해설을 참고하면 외재주의자는 이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 ②, ③번 선지 해설에 따르면, ㉡의 입장에서 ‘내 믿음’은 사실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0.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생의 읽기 활동이다.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내용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판적 읽기 활동

[글에 담긴 필자의 입장 비판하기]

- (가)의 필자는 외재주의의 한계는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의 한계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필자의 입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 ⇒ (가)의 필자는 외재주의의 한계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 (나)의 필자는 퇴계가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이 내용의 타당한 근거를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실제로 (나)의 3-4에서 필자는 퇴계가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했다. 그 근거로 인식 주체와 대상 모두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들었고, 이 근거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주제나 화제 등에서 서로 관련 있는 부분을 비교하기]
- 앎이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가)는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입장을 문제 삼은 것을, (나)는 퇴계가 물격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을 다루고 있다. ㉢
- ⇒ 적절하다.

- (가)는 현대 철학에서 지식의 습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나)는 전통 철학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 ⇒ (가)는 지식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식의 습득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나)는 주자의 격물론에 대한 퇴계의 해석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식의 실천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1.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 가지 요소가 ㉠ 충족된다면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선지의 의미를 지문의 맥락에 대입해 보면, '세 가지'라는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는 요소가 없게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하다.

- ② 그가 ㉡ 제기한 반론
: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 선지의 의미를 지문의 맥락에 대입해 보니, 반론을 내주거나 갖다 바친다는 어색한 의미가 된다.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은 ㉡ 제기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제기의 사전적 의미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이고,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은 제공의 사전적 의미이다.

- ③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 연마하고
: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 선지의 의미를 지문의 맥락에 대입해 보면, 지식을 힘써 배우고 닦는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하다.

- ④ 사물에 ㉣ 내재한 리
: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 선지의 의미를 지문의 맥락에 대입해 보면, 리가 사물의 안에 들어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하다.

- ⑤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 허용한 것은 아니다.
: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 선지의 의미를 지문의 맥락에 대입해 보면, 퇴계가 리의 능동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하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에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애정 시조들이 있다. 이러한 시조들에서 달은 시적 정황이나,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몇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먼저 애정 시조에서 달은 ㉠ 입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된다.

(가)

들 쓰자 비 썩나니 인제 가면 언제 오리
만경창파에 가는 듯 도라옵시
밤중만 지국총* 소리에 이긋는 듯 흐여라

* 지국총: 배에서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가)의 달은 화자와 입이 달밤에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애정 시조에서 달은 ㉡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

객창(客窓) 돛는 달의 두견이만 우지진다
엿그제 님 여히고 흐물며 객리*로다
밤중만 난간에 의지흐야 지는 달만

* 객리: 객지에 있는 동안.

(다)

주렴에 빗썩 달과 멀리 오는 옥적(玉笛) 소리
천수(千愁) 만한(萬恨)을 네 어이 도도는다
천리(千里)에 님 이별호고 잠 못 드러 흐노라

서정시에서는 특정한 소재가 화자의 감정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와 (다)의 달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나)와 (다)의 달은 이미 발생한 이별의 상황과 결합되어 화자의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애정 시조에서 달은 ㉢ 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입을 이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

내 므음 버혀 내여 더 들을 밍글고져
구만리(九萬里) 장천(長天)의 번드시 걸려 이서
고온 님 계신 고더 가 비취어나 보리라

(마)

달아 붉은 달아 님의 창전(窓前) 빗썩 달아
꽃 갓흔 우리 님이 안졌더냐 누엇더냐
져 달아 네 본더로 일너라 소식이나

달은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와 입 사이를 정서적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달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을 동시에 비취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라)와 (마)의 화자는 입과 떨어져 있지만 입 역시 어느 곳에서든지 달 아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을 통해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애정 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우리 문학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한 시가는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정 시조와 달을 바라보며 입을 그리워하는 외국의 시가를 비교해서 읽는 활동은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애정 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중국의 당시(唐詩)나 일본의 와카[和歌] 등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대나 나라가 달라도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2. (가)~(마)의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달은 배의 출항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와 입이 헤어지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달이 뜨자 배가 떠난 것’이므로 ‘달이 떴으니 배가 떠난 것’이다. 그래서 달이 배의 출항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거 문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정도는 평가원이 내는 선 안에 포함된다.
- ② (나)의 달은 화자가 타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한을 돋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정한’은 평가원이 12년간 쓴 적 없는 워딩이라 .. 출제자가 너무 옛날 분이 아니신가 싶다. 정한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도 큰 상심은 말자. 물론 정합성은 문제 없다.,
- ③ (다)의 달은 화자의 내면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옥적’이라는 소재와 어울려 입을 위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군.
⇒ 이거 틀렸거나 헛갈렸다면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관동별곡 문제를 꼭 다시 봐야 한다. (다)의 ‘달’은 ‘화자의 감정을 촉발’하는 시어이지 화자의 내면을 빗댔다가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전시가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선지와 오답 방식이 매우 흡사하다. 이런 문제에 익숙해야 한다.
- ④ (라)의 달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입과 화자를 이어 주는 매개물로 볼 수 있겠군.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 ⑤ (마)의 달은 화자가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로 설정된 것으로, 입의 사정을 화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전달자로 볼 수 있겠군.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23. <보기>의 ㉠~㉣ 중, (가)~(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시조는 형식적 제한이 견고해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을 얻어야 하므로, 관습적인 발상과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애정 시조에 나타나는 이러한 발상과 표현에는 ㉠ 이별과 관련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

⇒ ‘우지진다’가 ‘울며 지저귐다’라는 것을 몰랐으면 틀렸을 것이다. 근데 평가원은 이미 최근에 ‘우지진다’;에 대해 청각적 심상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몰랐다면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한거다.

㉡ 이별한 후의 심적 고통을 불면의 상황으로 나타내는 것,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 수(數)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수는 숫자의 수이다. 몰랐다고?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 의인화된 사물에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 이별의 책임이 전가된 사물은 생각보다 고전시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화자를 놀라게 한 사물 등은 많으나.. 이별의 책임을 특정 사물에 전가한 경우는 그렇지 많지는 않다. 고전시가 여성 화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치적 부분이 있어서 답을 골랐을 수도 있겠다. 물론 최고는 돌아가서 확인해서 푸는 거다.

㉤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물에 입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등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와 달리 (다)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② (다)와 달리 (나)는 특정한 소재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나)와 (다) 모두 ‘달’이 활용되는데, (나)의 ‘달’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래서 (다)의 ‘달’과 달리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경과’를 드러낸 게 맞다. 아마 고전시가 어휘를 몰라서 이 선지를 못 골랐다면, EBS 고전시가 공부 열심히 하자. 평가원은 1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능 고전시가는 무조건 EBS 내에서 연계 출제했다.

③ (나)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④ (나)와 (다)는 모두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며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⑤ (나)와 (다)는 모두 종장의 마지막 구절을 불완전하게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틀린 선지라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는 선지이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학생이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다음은 당(唐)나라 장악허의 '춘강화월야(春江花月夜)'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애정 시조와 비교해 읽으면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달의 세 가지 기능 ㉠~㉣이, 다음의 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가련하다 누대 위에서 배회하는 달은
헤어진 이의 경대*를 비추고 있으니
주렴 사이에는 걷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듬잇돌 위에는 털어도 다시 오네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서로 들을 길은 없으니
달빛 좇아 흘러가 입을 비취 보리라

*경대: 거울을 달아 세운 화장대.

달의 기능	탐구한 내용
㉠	이별한 이후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달의 기능은 찾을 수가 없겠군. ①
㉡	화자가 '가련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므로 달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	'털어도 다시 오네'라며 달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아 달은 화자의 수심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겠군. ③ ⇒ '털어도 다시 오네'라는 맥락에 '달'이 '화자의 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어서 틀린 선지다. 옛날 고전시가 3점 문제가 딱 이정도 선에서 정리됐다. 요새는 어렵게 나와서 사실 '요즘 추세'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는 이별한 두 사람이 같은 달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군. ④
㉤	'달빛 좇아'와 '입을 비취 보리라'를 통해 이별한 두 사람은 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군. 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이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 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 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 위선이 아니라 ㉡ 작위였으며 작위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빛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죽죽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은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갔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 [A] 이다. 다들 줄 아는 약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썩 달려 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 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 볼 때마다 어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들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들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는 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줄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어”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 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B] 나,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1남 1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가갯집 세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딸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 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 센티멘털하게 변해 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뜻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 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 은희경, 「새의 선물」 -

26.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반적으로 잘못 낸 문제이다. 정답인 1번 선지를 제외한 2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A] 만 읽고 풀어도 모두 걸러낼 수 있다. 2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모두 [A]와 관련한 내용은 틀렸다는 거다.

① [A]와 달리 [B]는 간추린 편지의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B]의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이 괄호로 제시됐는데, 이는 너무 가시적으로 알기가 쉬운 부분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 만큼(적절한 선지 1개 / 적절하지 않은 선지4개) 난이도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② [B]와 달리 [A]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A]만 읽어도 서술자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풀어낼 수 있다.

③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A]만 읽어도 서술자가 논평을 곁들이지 않는다고 풀어낼 수 있다.

④ [A]와 [B]는 모두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 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A]만 읽어도 서술자가 비밀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풀어낼 수 있다.

⑤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B]는 서술자가 현재에 편지를 읽어 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A]만 읽어도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걸 간추려 설명한 거다. 서울시교육청 해설은 이게 ‘회상이 아님’이라고 해설에 밝혀놓은 바가 있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남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 ② ‘나’는 이형렬의 편지가 짧으면서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읽기에 편하다고 느꼈다.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 ③ 할머니의 초저녁잠은 이모가 할머니의 눈을 피해 마음껏 편지를 쓰는 데 도움이 되었다.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근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제일 확실한 근거는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다’는 대목이다.
- ④ 이모는 이형렬의 사진을 보고 그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편지에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 돌아가서 진짜 그런 말을 했나 확인하며 푸는 것이 맞다.
- ⑤ 이모는 편지에 애뜻한 표현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편지의 표현에 대해 ‘나’에게 자문을 거의 구하지 않았다.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의 선물」의 주인공은 열두 살밖에 안 된 소녀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과 관련이 있다.

- ⇒ <보기>의 지문 연결성이 중략 앞부분에 쏠려 있는 것이 아쉽다. 중략 뒷부분이 훨씬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데, 그에 따라 중략 뒷부분과 <보기>를 연결해서 맞게 낸 선지는 4번뿐이다. 나머지 선지는 틀린 선지거나 중략 앞부분의 짧은 부분과 대응돼 지나치게 쉽게 구성됐다.
- ①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내면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온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 ②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 ③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 ‘빛진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이 한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 ④ 이모의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했다고 평가하며 ‘이형렬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리라고 짐작한 것은, ‘나’가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근거가 충분한 좋은 선지이다.
- ⑤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션’이라고 한 것은, ‘나’가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나’가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라는 부분이 이모에게 작용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애초에 <보기>의 내용이 중략 뒷부분하고 잘 연결이 안 돼서 쉽게 틀린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였다.

29. ㉠과 ㉡를 통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는 각각 위선과 작위인데, 지문의 내용상 위선과 작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애초에 이걸로 낼 수 있는 적절한 선지가 지나치게 한정적인 션이라 문제를 낼 수 있는 소재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문제가 쉬웠던 션이다. ㉠과 ㉡가 소개될 때 ‘㉠’이 아니라 ‘㉡’라고 소개 되는데, 정답선지인 4번에서 마찬가지로 ‘㉠’이 아닌 ‘㉡’이라고 문제를 내버려서, 지나치게 쉬운 문제가 돼버렸다. 억지로 낸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 그대로 ‘작위성’이 지나치게 느껴지는 문제였다.

- ① ‘나’는 ‘보여지는 나’가 받았던 상처가 ㉠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나’는 ㉠로 인해 발생한 의혹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나’를 분리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한다.
- ③ ‘나’는 ㉡로 인해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의 내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나’는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든 것을 ㉠이 아닌 ㉡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 위선과 작위에 대한 정보로, ‘작위는 복잡하지만 부도덕한 것은 아님’ 외에는 주어진 것이 없다. 따라서 그 맥락을 따라온 이 선지 외에는 답이 될 수 있는 선지가 없다.
- ⑤ ‘나’는 ㉠보다 복잡한 감정인 ㉡가 ‘나 아닌 다른 나’에 대한 주변의 비난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 전화는 800MHz 대역이나 2100MHz 대역 등과 같이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 1-2) 이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 휴대 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할당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1-3) 다중 접속 기술이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로,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1-4) CDMA 방식은 ㉠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하여도 수신자는 자신에게 보내온 정보만을 구별해 낼 수 있다.

1-1) 휴대 전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이라고 한다. 구형 집전화처럼 전화선, 인터넷선 등이 달린 것은 유선 통신, 핸드폰처럼 물리적인 선이 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무선 통신이라는 것 정도는 알 것이다. 무선 통신은 전파를 매개로 하는데, 핸드폰 통신에 쓰이는 전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주파수 대역, 쉽게 말해 주파수 영역이 분배되어 있다고 한다. 주파수가 전파를 표현하는데 쓰이는 값이라는 사실을 몰랐어도, 휴대 전화 통신이 정해진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1-2) 800MHz 대역이나 2100MHz 대역 등 다양한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 이를테면 SKT, KT, LG U+같은 사업자들이 할당받아 핸드폰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한다. 이들이 할당받은 일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무선 통신을 사용한다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전화 통화를 하든, 인터넷 접속을 하든 무선 통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같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가 본데, 예를 들면 내가 A에게 건 전화가 B에게 잘못 전달된다든가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혼선 없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가 보다.

1-3) 다중 접속 기술의 정의와 그 예시가 제시되었다. 위에서 생각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즉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접속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그 예시로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방식이 제시되었는데, 아직 CDMA 방식이 어떤 원리로 다중 접속을 가능케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더 읽어 보자.

1-4) CDMA 방식의 정의가 제시되었다. CDMA는 확산 코드는 것을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한다고

한다. 이를 이용하면 여러 송신자(=보내는 사람)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해도(=보내도) 수신자는 자신에게 보내온 정보만을 구별해 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전화를 A에게 걸면, CDMA 방식에서는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동시에 걸려 오는 다른 모든 전화가 아닌, 나의 전화만이 A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나 보다.

정보통신 관련 내용을 다루는 지문에서 송신, 수신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런 기본 용어를 헷갈리면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가 무너질 수 있다. 수신은 받을 수(受) 자를 써서, 통신이나 신호 등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라는 음을 가진 한자 중에는 정반대의 뜻을 지닌 줄 수(授)도 있어서 헷갈리기 쉽다. 그러므로 수신은 반대의 송신(送)을 기준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송신은 보낼 송(送) 자를 써서,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다.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작품인 정지상의 「송인(送人)」이 입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담았다는 것을 떠올려도 좋다.

2-1) 가령,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다. 2-2) 먼저 송신하려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한 'XOR 연산(⊕)'을 수행한다. 2-3) XOR 연산은 비교 대상이 같으면 0, 다르면 1로 나타내는 연산이다. 2-4) 1001의 맨 앞의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리수와 XOR 연산을 하면 011로 확산되고, 그 다음의 0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리수와 XOR 연산을 하면 100으로 확산된다. 2-5) 이런 식으로 하면 1001은 12 자리의 011 100 100 011로 확산되고, 확산된 신호가 송신된다. 2-6)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 2-7) 12자리 0.1.1.1.0.0.1.0.0.0.1.1은 확산 코드 0.1.1과 같은 $y_1 y_2 y_3 y_4 y_5 y_6 y_7 y_8 y_9 y_{10} y_{11} y_{12}$ $y_1 y_2 y_3$ 같은 3자리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2-8) 그리고 첫 블록에서 $y_1 \oplus c_1$, $y_2 \oplus c_2$, $y_3 \oplus c_3$, 다음 블록에서 $y_4 \oplus c_1$, $y_5 \oplus c_2$, $y_6 \oplus c_3$ 와 같은 수행을 반복한다. 2-9) 그러면 각 블록의 연산 결과는 111 또는 000이어서 1 또는 0으로 수렴되어 원래의 정보 1001을 복원할 수 있다.

2-1)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CDMA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원리를 설명하려나 보다. 1001이라는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쓰이는 확산 코드가 100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송신 방법이 뒤이어 서술될 것이다.

2-2) 'XOR 연산'이라는 것을 통해 송신하려는 정보(=1001)와 확산 코드(=100)를 결합한다고 한다.

2-3) XOR 연산의 개념이 정의되었다. 두 대상을 비교하나 본데, 두 대상이 같으면 0, 다르면 1로 나타내는 연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0과 0의 연산 결과는 (두 대상이 서로 같으므로) $0 \oplus 0 = 0$, 0과 1의 연산 결과는 (두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0 \oplus 1 = 1$ 이 되는 식이겠다.

2-4) 송신하려는 정보 1001에서 맨 앞자리의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리수와 XOR연산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1과

1의 연산 결과는 0, 1과 0의 연산 결과는 1이 되어 011이라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기존 네 자리 정보 1001의 첫 한 자리가 세 자리의 정보가 된 것인데, 이를 ‘확산된다고 표현하는가 보다. 다음 자리인 1001의 0도 확산 코드 100과 XOR 연산을 수행하면 0과 1의 연산 결과는 1, 0과 0의 연산 결과는 0이므로 100으로 확산될 것이다.

2-5)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네 자리 정보 1001의 모든 자리에 대해 세 자리 확산 코드 100과의 XOR 연산을 수행하면 (4×3=)12자리인 011 100 100 011로 확산된다. 원래 정보인 1001을 그대로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011 100 100 011이라는 신호로 확산하여 송신하는가 보다.

2-6)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 즉 100을 통해 수신된 열두 자리 신호 011 100 100 011을 원래의 정보 1001로 복원할 수 있다고 한다.

2-7) 기존에 정보를 확산하여 송신할 때는, 정보 한 자리마다 확산 코드 세 자리의 XOR 연산을 수행하여 총 네 자리의 정보를 총 열두 자리의 신호로 확산했다. 기존의 정보로 복원하려면 이 과정을 거꾸로 진행해야 할 텐데, 그래서 열두 자리 신호를 확산 코드와 자리수가 같은 세 자리의 블록으로 구분하나 보다. 기존 정보가 네 자리였으므로 총 네 블록으로 나뉘게 된다.

2-8) 첫 블록을 이루는 세 자리의 신호 y_1, y_2, y_3 를 각각 확산 코드를 이루는 세 자리의 c_1, c_2, c_3 와 XOR 연산을 수행하고, 그 다음 블록을 이루는 세 자리의 신호 y_4, y_5, y_6 를 각각 확산 코드를 이루는 세 자리의 c_1, c_2, c_3 와 XOR 연산을 수행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하는가 보다. 지문에서 생략한 연산까지 마저 확인하자면 세 번째 블록의 y_7, y_8, y_9 와 c_1, c_2, c_3 간의 XOR 연산, 네 번째 블록의 y_{10}, y_{11}, y_{12} 와 c_1, c_2, c_3 간의 XOR 연산까지 수행될 것이다.

2-9) 그러면 기존에 1이었던 정보를 확산한 블록의 연산 결과로는 111이, 기존에 0이었던 정보를 확산한 블록의 연산 결과로는 000이 나와서 원래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가 보다. 지문의 맥락 이해나 문제 풀이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복원 과정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자.

확산 전 정보가 1일 때, 확산 코드의 0과 XOR 연산을 수행하면 1의 신호로, 1과 수행하면 0의 신호로 확산된다. 이때 확산된 신호의 1과 확산 코드의 0에 대해 XOR 연산을 수행하면 1이, 확산된 신호의 0과 확산 코드의 1에 대해 XOR 연산을 수행해도 1이 된다. 즉, 기존의 정보가 1이었다면 확산된 뒤 복원해도 항상 1이 된다. 확산 전 정보가 0이었을 경우의 확산과 복원 결과도 마찬가지로 된다.

그렇다면 기존 정보를 확산할 때 쓰인 확산 코드와는 다른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신호를 정보로 복원하려고 시도하면, 000 또는 111로 수렴되지 않을 것이다. 즉,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공유하는 수신자만이 송신된 신호를 기존의 정보로 복원할 수 있어서, 서로 다

른 확산 코드를 가진 사용자들 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1) 한편 2400MHz 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어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3-2) 2400MHz 대역으로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3-3)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파수 도약확산(FHSS) 방식을 사용하는데,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페어링’되어야 한다. 3-4) 페어링은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무선 통신을 위해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것이다. 3-5)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 3-6)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상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검색 신호에 응답을 한다. 3-7) 응답한 기기들 중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페어링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기기들 간에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3-8) 기기들 간에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오는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검색 신호에 응답한다.

3-1) 2400MHz 대역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었는데, 이전에도 구체적인 대역이 언급되었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가? 1-1~1-2로 돌아가 확인해 보니, 800MHz 대역이나 2100MHz 대역 등은 특정 이동통신사가 할당받아 핸드폰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400MHz 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3-2) 블루투스 기기들은 2400MHz 대역에서 통신하나 보다. 이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같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의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핸드폰 통신에서는 다중 접속 기술을 이용하여 혼선을 피했고, 그 중에서도 CDMA 방식의 원리가 서술되었는데, 혹시 블루투스 통신도 혼선을 피하기 위해 CDMA 방식을 이용하는가 하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실제로 뒤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른 방식을 이용한다. 계속 읽어 보자.

3-3) 블루투스 기기들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파수 도약확산(FHSS)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페어링’되어야 한다고 한다. 요즘 새로 나오는 신형 핸드폰에는 유선 이어폰 단자가 없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무선 이어폰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휴대폰과 페어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말하는 것이겠다.

3-4) 페어링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었다.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의 페어링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들어맞는 설명인 것 같다.

3-5)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검색 신호는 주변의 모든 블루투

스 기기들로 송신된다고 한다. 이어폰을 연결하려고 할 때 주변의 다른 스마트폰이나 TV 등이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3-6)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상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다른 기기가 검색 신호를 보내면 이에 응답한다고 한다. 이어폰을 연결하려고 할 때 주변의 다른 스마트폰이나 TV 등이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3-7) 응답한 기기들 중 통신을 원하는 기기, 예를 들어 이어폰을 선택하면 스마트폰과 이어폰 간의 페어링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3-8) 기기들 간에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의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이에 응답한다고 한다. 혹시 인강을 들으려는 등의 목적으로 핸드폰과 태블릿에 모두 이어폰을 페어링한 경험이 있다면, 어느 한 쪽에 연결해서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다른 기기에서 연결을 시도하면 이에 응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3-4~3-8의 내용은 페어링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아직 FHSS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블루투스 기기들이 FHSS 방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혼선을 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며 계속 읽어 보자.

4-1)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2MHz 부터 2480MHz까지의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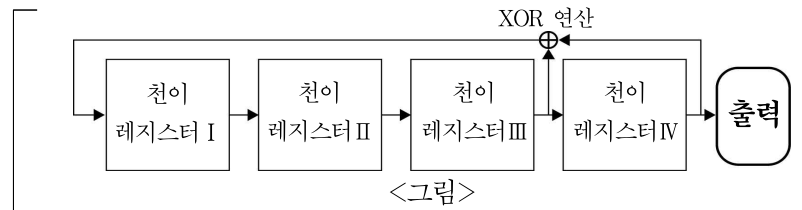
4-2)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 **확산 패턴**이라고 한다.

4-3) ㉡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이동해 가며 통신을 한다.

4-1)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2MHz ~2480MHz의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 2402MHz, 2403MHz, ... 2480MHz 등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그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이동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2410MHz → 2463MHz → 2431MHz → 2455MHz → ...와 같은 식이겠다.

4-2) 확산 패턴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었다.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산 패턴이라는 패턴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여 이동한다고 한다.

4-3) 블루투스 기기들이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제시된 정보인데, 그 빈도가 1초당 1600번에 이른다고 한다.



[B]

5-1)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 5-2) 각 시행에서 각각의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의 천이 레지스터로 이동한다. 5-3) 이때 천이 레지스터 IV가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되고, 비워진 천이 레지스터 I은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 III과 천이 레지스터 IV의 값을 XOR 연산을 하여 채운다. 5-4) 각 천이 레지스터의 초깃값이 1, 1, 1, 1일 때 각 시행에 따라 출력된 값은 1, 1, 1, 1, 0, 0, 0, 1, 0, 0, 1, 1, 0, 1, 0, ...과 같이 나타난다. 5-5) 따라서 선택하려는 채널의 개수를 고려하여, 출력된 값들을 변환하면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다. 5-6)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5-1) FHSS 방식에서는 블루투스 기기들이 확산 패턴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며 이동한다고 하였는데, 확산 패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나 보다. 확산 패턴은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각주에서는 천이 레지스터를 '정보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라고 정의했다. <그림>을 보니 화살표 방향으로 저장된 정보가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XOR 연산도 수행되나 보다. 자세한 원리를 알기 위해 더 읽어 보자.

5-2) 5-1에서 생각했던 대로, 각 시행에서 각각의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의 천이 레지스터로 이동한다고 한다. 그런데 천이 레지스터 IV의 오른쪽에는 다른 레지스터가 없다. 이 값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고, <그림>을 보고 그 값이 출력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도 있다.

5-3) <그림>에 표현된 대로 천이 레지스터 IV가 가지고 있던 값은 출력된다고 한다. 생각해 보니 천이 레지스터 I의 왼쪽에도 다른 레지스터가 없는데, 천이 레지스터 I의 값은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 III과 천이 레지스터 IV의 값을 XOR 연산을 하여 채운다고 한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5-4) 천이 레지스터의 초깃값이 1, 1, 1, 1인 상황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경우 출력값이 1, 1, 1, 1, 0, 0, 0, 1, 0, 0, 1, 1, 0, 1, 0, ...과 같이 나타난다고 한다. 위의 원리를 적용하여 확인해 보자.

천이 레지스터 I, II, III, IV에 저장된 값을 (I, II, III, IV)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해 보자. 초깃값은 (1, 1, 1,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회 시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 , 1, 1, 1)과 같이 각 레지스터의 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기존에 천이 레지스터 IV가 가지고 있던 값인 1이 출력된다. 이때 이전 시행 (1, 1, 1, 1)의 천이 레지스터 III과 IV의 값을 XOR 연산을 하면 0이 되므로, 1회 시행 후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0, 1, 1, 1)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시행이 이루어지면 (0, 0, 1, 1)이 되고, 출력값은 1이다. 1회 더 이루어지면 (0, 0, 0, 1)이 되고, 역시 출력값은 1이다. 그런데 시행이 1회 더 이루어지면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 III과 IV의 값이 각각 0과 1이므로, (1, 0, 0, 0)이 되고 출력값은 1이다. 지금까지의 출력값은 1, 1, 1, 1이었는데, (1, 0, 0, 0)이 4회 시행을 거치면 그 다음 네 번의 출력값은 0, 0, 0, 1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하면 1, 1, 1, 1, 0, 0, 0, 1, 0, 0, 1, 1, 0, 1, 0, ……과 같은 출력값이 나타나는가 보다.

5-5)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출력된 값들을 변환하면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서로 다른 확산 패턴을 가진 기기들은 서로 다른 패턴에 따라 이동할 채널을 선택하므로,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6)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어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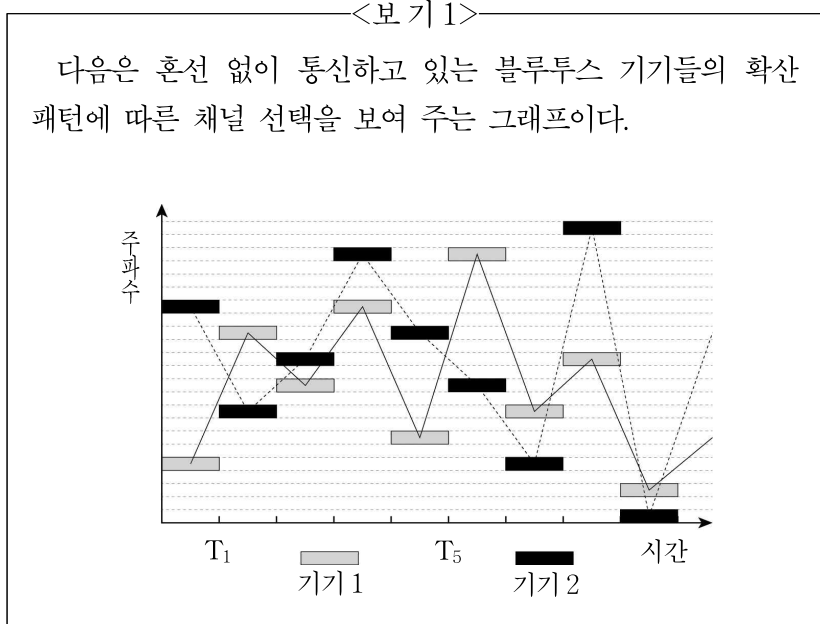
3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DMA 방식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 1-3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② 이동 통신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휴대 전화 서비스를 공급한다.
⇒ 1-2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③ 블루투스 기기들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2400MHz 대역으로 통신한다.
⇒ 3-1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④ CDMA 방식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 2-6에 따르면,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이 선지의 정오를 올라가기 위해 지문의 2문단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문 전반부의 핵심 정보와 직결되므로 바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야 한다.
- ⑤ 블루투스 기기들의 페어링을 위한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
⇒ 3-5에 따르면 적절하다.

31. [A], [B]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송신하려는 정보가 m자리의 정보일 때 n자리의 확산 코드로 XOR 연산을 한다면 $m \times n$ 자리로 확산되겠군.
⇒ m자리 정보의 각 자릿수 하나하나마다 n자리의 확산 코드와 XOR 연산을 수행한다. 그 결과 1자리의 정보가 n자리의 신호로 확산되므로, m자리의 정보는 $m \times n$ 자리의 신호로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추론이다.
- ② [A] :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호를,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복원하려 한다면 4자리의 블록으로 구분되겠군.
⇒ ①번 선지 해설을 참고하면, m자리의 정보를 n자리의 확산 코드로 XOR 연산을 하면 $m \times n$ 자리로 확산된다. 이를 다시 원래의 m자리의 정보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m개의 블록으로 나눈 뒤 각 블록마다 n자리의 확산 코드와 XOR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확산 코드가 n자리이므로, 각 블록의 크기 역시 n자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호를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복원할 때는 4자리의 블록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적절한 추론이다.
- ③ [A] : 수신된 신호 011 100 100 011을 확산 코드 010으로 복원하려 한다면 연산 결과는 001 110 110 001로 나타나 수렴되지 않겠군.
⇒ 각 블록마다 확산 코드와의 XOR 연산을 수행해 보면, 011과 010의 연산 결과는 001, 100과 010의 연산 결과는 110이 되고 신호 전체의 연산 결과는 001 100 100 011이 된다. 각 블록이 111 또는 000이어야 1 또는 0으로 수렴되므로, 이 연산 결과는 수렴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추론이다.
- ④ [B] : 각 천이 레지스터의 초깃값이 0, 1, 1, 0이면 세 번째 시행으로 출력되는 값은 0이겠군.
⇒ 4회 이하의 시행 후의 출력값을 확인할 때는 천이 레지스터 I에 들어갈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4회 시행까지는 초깃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출력되기 때문이다.
초깃값이 (a, b, c, d)이면 4회 시행의 출력값은 d, c, b, a일 것이므로, 선지의 상황에서 세 번째 시행의 출력값은 1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 ⑤ [B] : 천이 레지스터 III과 천이 레지스터 IV의 초깃값이 각각 0이라면 첫 번째 시행 후에 천이 레지스터 I은 0으로 채워지겠군.
⇒ 초깃값을 (?, ?, 0, 0)이라고 표현해 보자. 첫 번째 시행 이후 천이 레지스터 I은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 III과 IV의 값을 XOR 연산을 하여 채우므로, 첫 번째 시행 후에 천이 레지스터 I은 $(0 \oplus 0 =) 0$ 으로 채워지게 된다.

32.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과 관련하여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2>
- a.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frac{1}{1600}$ 초마다 채널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신호를 탐지할 수 없겠군.
⇒ 두 기기 모두 $\frac{1}{1600}$ 초마다 채널을 이동하는 것은 맞지만, 3-8에 따르면 통신이 이루어지는 기기도 주변의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이에 응답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b.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1MHz 단위로 형성된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군.
⇒ 4-1~4-2에 따르면 적절하다.
 - c. 새로운 기기가 기기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을 이동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르다면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겠군.
⇒ 5-6에 따르면 적절하다.
 - d. 기기 1과 기기 2가 동시에 채널 이동을 시작하였지만 혼선 없이 통신하는 것은 확산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겠군.
⇒ 동시에 서로 다른 확산 패턴으로 채널 이동을 시작하였다면, 서로 다른 채널 선택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① a, b
- ② b, d
- ③ c, d
- ④ a, c, d
- ⑤ b, c, d

33. ㉠ 확산 신호, ㉡ 확산 패턴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는 데 사용된다.
⇒ 2-6에 따르면 적절하다.
- ② ㉡은 XOR 연산을 통해 기기들 간의 페어링 과정을 생략한다.
⇒ ㉡은 FHSS 방식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여 이동할 때 사용되는데, 이때 XOR 연산이 수행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HSS 방식을 사용하여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페어링되어야 하므로, 기기들 간의 페어링 과정이 생략되면 ㉡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과 ㉡은 모두 XOR 연산에 필요한 초깃값들을 만든다.
⇒ '초깃값'은 ㉡ 확산 패턴 생성 과정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 초깃값의 일부는 이동하고 일부는 XOR 연산을 수행하면서 ㉡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초깃값들을 만든다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은 초깃값과 관련이 없다.
- ④ ㉠과 ㉡은 모두 송신하려는 정보의 각 자릿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 ㉠과 ㉡ 모두 송신하려는 정보의 자릿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과 ㉡은 모두 수신하려는 정보와 검색 신호를 구별해 내는 데 사용된다.
⇒ ㉠은 수신하려는 정보(=동일한 확산 코드를 가진 송신자가 보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해 내는 데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색 신호는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페어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 무관하다. ㉡ 역시 이미 검색 신호를 탐지하여 페어링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널 이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검색 신호와 무관하다.

34. ㉠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이동해 가며 통신을 한다.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블루투스 통신에서 2402MHz부터 2480MHz까지의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
 ⇒ 블루투스 통신에서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79개의 채널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블루투스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그 주파수 대역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 2400MHz 대역은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나기 쉽다. 혼선을 피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기의 통신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 FHSS 방식인데, FHSS 방식에서는 ㉡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확산 패턴에 따라 빠른 주기로 채널을 이동하면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다는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③ 확산 패턴을 만들면서 각각의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오른쪽의 천이 레지스터로 이동시키기 위해
 ⇒ 확산 패턴을 만들면서 각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 확산 패턴을 만드는 것이고, 확산 패턴을 만들기 위해 각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블루투스 통신에 필요한 확산 패턴을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만들기 위해
 ⇒ 확산 패턴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 확산 패턴을 만드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블루투스 기기들이 무선 연결을 위해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 블루투스 기기들이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페어링 단계이다. 페어링 단계의 논의는 ㉡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FHSS 방식을 사용하여 ㉠하면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기 간 페어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페어링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 페어링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의 사고 과정을 거치든 적절하지 않다.

[35~37] 화법

〈독해의 핵심〉

1. 내용을 과하게 집중하여 암기하려 하지 말고 ‘말하기 방식’에 집중한다.
2.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는 주로 2번 문제로 등장한다. 지문의 정보로 돌아오며 푸는 게 핵심이므로 정보의 위치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청중의 반응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3번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때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나 주로 글의 주제와 관련지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 글의 주제를 기억하자.

지문 발문: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냥 발표로, 화자 1명이 다수의 청중과 하는 담화이다.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발문은 아니니, 그냥 읽도록 하자.

1-1) 여러분, (그림 제시) 풍속화 속에 나오는 이 기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수차입니다. 1-2)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물을 끌어 올리는 수차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1-3) 그런데 이 그림 속 농민의 표정이 힘들어 보입니다. 1-4) 수차는 직접 밭로 밟아 물을 끌어 올리는 기계였기 때문에 수차를 이용해 물을 끌어 올리는 일은 농민들에게 여전히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1-5) 바로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실학자 하백원은 자승차를 설계했습니다. 1-6) 자승차란 물을 스스로 끌어 올리는 수차라는 뜻입니다. 1-7) 오늘은 이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 〈말하기 방식〉 그림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개념의 정의를 언급하며 발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내용 정리〉 수차와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흥미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수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한 후 그것을 개선한 자승차를 발표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2-1) (설계도 제시) 이것은 자승차의 설계도인 자승차도해입니다. 2-2) 100여 개가 넘는 각 부품이 그려져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장만 선택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2-3) 보시는 것처럼 자승차에 쓰이는 부품의 이름은 물론 치수와 재질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 그렇지만 설계도만으로는 자승차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죠? 2-5) (사진 1 제시) 이 사진

은 자승차도해를 바탕으로 ○○ 과학관에서 직접 만들어 본 자승차의 모형입니다. 2-6)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흐르는 물의 힘에 의해서 회전하는 물레방아인데 이것이 돌면 그 끝에 설치된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됩니다. 2-7) 톱니바퀴가 회전하면서 연결된 막대가 피스톤 역할을 합니다. 2-8) 그러면 물통에 물이 차서 관을 통해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2-9)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제가 생각한 대로 이 사진만으로는 자승차가 작동되는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군요. 2-10) 그래서 자승차가 작동되는 모습을 컴퓨터로 구현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2-11) (동영상 재생) 훨씬 이해가 잘 되지요?

⇒ 〈말하기 방식〉 시각자료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지만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반응만을 살피고 있으므로 청중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내용 정리〉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자승차의 설계, 자승차의 모습, 자승차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시각자료와 설명만으로는 청중의 이해가 어려움을 예측하고,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3-1) 그런데 자승차가 당시에 널리 쓰였을까요? 3-2)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자승차는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3-3) 물의 힘만으로는 자승차를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3-4)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되었던 과학적 원리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5) (사진 2 제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서는 톱니바퀴를 활용하여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데 자승차에도 이와 유사한 과학적 원리가 사용됩니다. 3-6) 이처럼 자승차에 적용된 시대를 뛰어넘은 과학적 발상은 높이 살 만합니다.

⇒ 〈말하기 방식〉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과 소통하고 있다.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내용 정리〉 자승차가 청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용화되지 못했음을 제시한 후, 그 원리가 현대의 자동차에도 유사하게 사용됨을 밝히며 자승차의 원리가 뛰어난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4-1)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던 하백원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승차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2)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발표 후 제게 질문해 주시거나 제가 발표를 위해 참고한 ○○ 과학관 누리집에 방문해 보시면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3)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말하기 방식〉 자승차의 의의를 밝힌 후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내용 정리〉 자승차의 역사적 의의를 밝힌 후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 또는 ○○ 과학관 누리집을 방문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5. 위 발표를 위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자승차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제시해야겠다.
⇒ [1-6]에서 자승차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자승차가 실제로 쓰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 [3-3]에서 물의 힘만으로 자승차를 작동하기 어려웠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자승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소개해야겠다.
⇒ [4-2]에서 발표자에게 질문하거나 ○○ 과학관 누리집에 방문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하백원이 자승차를 설계하려고 했던 이유를 밝혀야겠다.
⇒ [1-5]에서 하백원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승차를 설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⑤ 하백원이 자승차 개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언급해야겠다.
⇒ 하백원이 자승차 개량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관련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36.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와 관련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하였다.
⇒ [1-1]에서 그림을 활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발표 대상의 설계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 [2-2]에서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몇 개의 설계도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발표 대상의 각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였다.
⇒ [2-5]에 따르면 사진 1은 자승차도해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승차의 모형으로 발표 대상인 자승차의 각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기에는 부적합하다.
- ④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여 준비한 동영상은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하였다.
⇒ [2-9-11]에서 청중이 어려워할 것을 예측하여 준비한 자승차가 작동되는 동영상을 통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다른 사례와의 유사성을 들어 발표 대상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려 주기 위해 사진 2를 활용하였다.
⇒ [3-5]에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리가 자승차에 사용되는 원리와 유사함을 밝히며 자승차의 과학적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37.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1: 물의 힘만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아 아쉬웠어. 나중에 발표자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학생 2: 하백원이라는 실학자를 잘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 그가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던 실학자였다고 하니 자승차 이외에도 농사에 관련된 다른 기계를 더 고안했을 것 같아.
학생 3: 조선 시대에도 스스로 작동하는 수차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유익했어. 현대 기술에서 자승차와 유사한 원리가 사용된 경우가 더 있을까? 나중에 검색해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 ‘학생 1’은 발표에서 아쉬웠던 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② ‘학생 2’는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 ‘학생 2’는 새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밝히고 있을 뿐, 누락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학생 1’과 ‘학생 3’는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론하고 있지 않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은 ‘학생 2’이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학생 2’는 하백원이라는 실학자를 새로 알게 된 것에 대해, ‘학생 3’은 조선시대에 스스로 움직이는 수차를 만들 고자 했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8~41] 화법·작문 융합

〈독해의 핵심〉

1. 화작용합은 문항개발 단계부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담화의 상황과 작문의 상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별개의 두 지문으로 생각하고 문항을 나누어 푸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2. 발문에서 화법 지문과 작문 지문의 연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읽어야 한다.
3. 화작용합이 등장한 이후 대부분의 시험에서 화법 지문에는 대화가 포함된 지문이 나온다. 대화 속 흐름과 세부내용을 잘 파악하도록 하자.
4. 화법이 먼저 나오고 작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3,4주차에서 강조했던 작문 목적, 주제, 예상독자는 화법의 내용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작문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 없거나 따로 제공하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문제 발문: (가)는 ‘활동 1’에 따른 대화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지민’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를 바탕으로 (나)쓰고 있다는 발문이다. (가)를 먼저 읽고, 그 내용을 고려하면서 (나)를 읽도록 하자.

독후 활동

- [활동 1]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활동 2] ‘활동 1’을 바탕으로 교훈을 주는 글쓰기

⇒ 〈자료독해〉 활동 2는 활동 1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쓰는 글일 것이다. 활동 1에서 내용을 독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읽도록 하자.

(가)

- [1]지민 :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다들 읽었지? 나는 지금까지 볼 수 있어 좋았는데, 너희들은 어땠어?
- [2]홍철 : ㉠ 이 책이 내가 이해하기 너무 힘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고 목차를 봤더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 그런데 막상 읽어 보니 쉽게 설명을 잘 해 놓았더라.
- [3]윤주 : 응. ㉡ 이 책은 우리의 사고 경향을 일곱 가지로 나눠 각 장에서 한 가지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하루 1장씩 일주일간 읽으려고 계획했었어. 그런데 3일 만에 다 읽었어.

⇒ 〈내용 정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읽고 홍철은 목차를 보고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쉽게 설명해 놓았다는 평가를, 윤주는 책에서 7장으로 나누어 놓아

하루에 1장씩 읽으려 했으나 3일만에 다 읽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재미있었나보다.)

- [4]지민 : 어떤 내용이 흥미로웠는지 말해 줄래?
 [5]윤주 : 배가 정박할 때 닻을 펴에 박아 두면 배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기준에 얽매어 폭넓게 사고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이 흥미로웠어.
 [6]홍철 : 나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성향이 특정한 판단을 강화하여 유용한 정보를 놓치고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어.
 [7]지민 : ㉠ (메모를 살피며) 3장에서 다룬 '정박 효과'와 5장에서 다룬 '확신의 덫'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거구나.
 [8]윤주 : (목소리를 높여) 우아! 그건 책의 내용을 메모해 둔 거야?
 [9]지민 : 응, 맞아.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메모해 두면 독후 활동을 할 때 유용하거든. (메모를 살피며) 나는 책의 서문에서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한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
 [10]홍철 : ㉡ 나도 이 책의 작가가 우리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 〈내용 정리〉 흥미로웠던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윤주는 배에 비유하여 우리가 주어진 기준에 맞춰 생각하여 폭넓게 사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정박효과)을, 홍철은 수용하고 싶은 것만 수용하려는 성향이 오류를 유발한다는 내용(확신의 덫)을, 지민은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서문의 내용을 흥미로워하고 있다. 추가로 홍철은 자신이 생각하는 작가의 교훈을 말하고 있다.
 [11]지민 :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독후 활동 중 '활동 2'를 해야 하잖아. 정박 효과나 확신의 덫을 일으키는 사고 경향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좋겠지?
 [11]홍철 : 음, 그런데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러한 사고 경향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12]윤주 : ㉢ 내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겨서 책을 읽은 뒤에 이 책의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책도 찾아 읽었거든. 그 책에서도 그런 점을 언급하고 있더라.
 [13]지민 : 그렇구나. 내가 초고에 그 점도 언급하도록 해 볼게.
 ⇒ 〈내용 정리〉 활동 2를 위해 지민, 홍철이 흥미로워 했던 정박효과나 확신의 덫에 대한 언급을 한 후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홍철은 책을 바탕으로, 윤주는 참고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박효과나 확신의 덫이 나쁜 것만은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초고에 반영될 것이다.

- [14]홍철 : 그런데 윤주야,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그새 다른 책까지 찾아 읽어 보다니 대단하다.
 [15]윤주 : (검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16]지민 : (간절한 눈빛으로) 윤주야, 초고를 쓸 때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내일까지 책 내용을 요약해서 줄 수 있니? [A]
 [17]윤주 :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 책을 그냥 도서관에 반납해 버렸는데 어떡하지?
 [18]지민 : (상냥한 말투로) 괜찮아. 내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게.
 [19]윤주 : 응.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줘.
 ⇒ 〈내용 정리〉 참고 문헌을 요약해달라는 지민의 요청에 윤주는 이미 반납해버렸다는 답을 하고 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지민이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14-19]에서 준·비언어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 1-1) 1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물건을 3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물건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1-2)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물건의 가격이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10만원이라는 가격표에 얽매어 지갑 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1-3)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닻을 펴에 박아 두면 배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초기에 제시된 기준이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4)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박효과'라고 부른다. 1-5) 정박 효과는 비단 소비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 1-6)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사람의 첫인상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 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때의 직관적 판단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틀린 것일 지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1-7) 이 역시 정박 효과와 관련이 있다.
 ⇒ 〈내용 정리〉 정박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예로 글을 시작하며 정박효과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예임을 밝히고 있다.

- 2-1)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고 경향도 가지고 있다. 2-2) 이러한 사고 경향은 '확신의 덫'에 빠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2-3)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 준다. 2-4)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약 72초 만에 폭발하였는데, 챌린저호의 폭발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상충하는 정보를 무시해 버렸다는 사실이 원인 규명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2-5) 전문가들조차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음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확신의 덫에 빠졌던 것이다. 2-6)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을 가진 '답정너'라는 신

조어를 떠올려 보면 확신의 뒷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내용 정리〉 확신의 뒷에 대한 정의를 먼저 밝힌 후 확신의 뒷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책에서 소개했던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답정너’라는 신조어를 관련된 정말로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1) 아마 누군가는 정박 효과나 확신의 뒷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직관적 판단과 자기 확신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3-2) 정보 부족과 시간 제약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직관적 판단은 인지적 부담을 줄여 주고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3-3) 또한 어떠한 판단에 대한 자기 확신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준다. 3-4) 그러나 이러한 사고 경향은 터무니없거나 편향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5)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6) 첫째, 누구든지 자신의 판단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3-7)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 3-8) 둘째,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3-9) 내 생각과 다른 생각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는 경청에서부터 나온다. 3-10) 이러한 두 자세를 통해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나 자신과 타인,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내용 정리〉 예상 반박으로 1,2문단에서 소개한 정박효과나 확신의 뒷과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재반박을 하고 우리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태도로 ‘자신의 판단 오류 가능성’과 ‘경청하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38.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책을 읽기 전에 미리 책의 내용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에서 책이 본인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을지에 대해 가늠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 : 책의 구성을 고려하여 책 읽기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 [3]에서 책이 7장이므로 일주일동안 하루에 1장씩 읽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계획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 ③ ㉢ : 책을 읽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메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7]에서 메모를 살피고 있다는 것, [8]에서 메모를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 [9]에서 책의 내용을 메모하는 것의 장점을 언급한 후 메모를 살피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 : 책에 드러난 글쓰기 형식에 대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0]은 홍철이 생각하는 작가가 주는 교훈일 뿐, 글쓰기 형식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⑤ ㉤ : 책을 읽은 뒤에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확장적 독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2]는 책을 읽은 후 책의 참고문헌을 읽으며 확장적 독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철’의 발화에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언어적 표현을 강화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14]에서 홍철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언어적 표현을 강화하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엄지를 치켜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윤주’의 첫 번째 발화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는 언어적 표현을 보완하는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15]에서 윤주는 ‘비언어적’ 표현인 껌연쩍은 ‘표정’을 활용하여 자신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며 자신을 낮추는 언어적 표현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지민’의 첫 번째 발화에는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점을 찾고자 하는 언어적 표현을 부각하는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16]에서 지민은 ‘비언어적’ 표현인 ‘눈빛’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점을 찾고자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윤주’의 두 번째 발화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제안하는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17]에서 윤주는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해당 발화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제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지민’의 두 번째 발화에는 언어적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것임을 드러내는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18]에서 지민은 ‘준언어적’ 표현인 ‘말투’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를 언어적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0.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언급되지 않은 첫인상 판단에 대해 설명하여 정박 효과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점을 부연하였다.
⇒ [1-5-7]에서 첫인상 판단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며 정박 효과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점을 부연하고 있는데, 이는 (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 ② (가)에 언급된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에 대해 정보를 추가하여 확신의 뒷에 빠지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 [2-3-5]에서 (가)의 [6]에서 언급한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하여 확신의 뒷에 빠지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에 언급되지 않은 신조어를 예로 들어 확신의 뒷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2-6]에서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신조어인 '답정너'를 예로 확신의 뒷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가)에 언급된 작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9]에 언급된 작가의 말은 [3-7]에서 직접인용되었다. 다만, 이를 통해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가)에 언급되지 않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밝혀 개방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3-8-9]에서 경청을 통한 개방적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41. <보기>와 관련하여 (나)에 나타난 쓰기 전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글쓰기는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글쓰기에서 필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독자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필자와 독자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어 독자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전략, ㉡ 물음이나 독창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전략, ㉢ 글의 내용이 독자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전략, ㉣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여 글 속에서 미리 대응하는 전략, ㉤ 독자에게 의미가 있을 만한 정보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는 전략 등이 있다.

- ① ㉠와 관련하여, 필자와 독자를 모두 포함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필자와 독자의 거리감을 좁혔다.
⇒ [3-10]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필자와 독자의 거리감을 좁혔다.
- ② ㉡와 관련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일상적 상황을 가정한 물음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다.
⇒ [1-1]에서 10만원으로 물건을 사는 일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질문을 제시하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③ ㉢와 관련하여,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이유를 분석하여 독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알 수 있게 했다.
⇒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 ④ ㉣와 관련하여, 직관적 판단과 자기 확신의 긍정적 측면에 내재된 문제점을 언급하여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에 대응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 [3-1-3]에서 예상되는 반응을 제시하고, [3-4-5]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 ⑤ ㉤와 관련하여, 터무니없거나 편향된 판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설명함으로써 독자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 주었다.
⇒ [3-6-9]에서 터무니없거나 편향된 판단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42~45] 19 10학 작문

<독해의 핵심>

1. 작문 영역의 독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서 영역의 독해와는 다르게 읽어야 한다. 작문 영역은 주로 학생의 글 (특히 초고)가 제시되고 이는 주로 완벽한 글이 아니다.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생략하여 '자료 활용'이나 '의견 반영' 문제로 넘기기도 한다.) 즉, 정보를 그대로 기억해서 논리회로를 연결하며 읽어내는 글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작문에는 때때로 지문에 자료, 개요, 작문 상황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면, 반드시 읽고 누가 (주로 학생이지만) 어떤 의도로 (목적이 정보 전달인지, 설득인지 정도만) 어떤 주제를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글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3. 글(초고)를 제외한 부분을 읽었다면, 초고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이마저도 못하겠다면 위치 정도만이라도 기억하자. 어차피 '자료 활용'이나 '의견 반영'문제에서는 지문으로 돌아와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 발문: (가)는 지역 문제 탐구 동아리에서 교지에 실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초고이고, (나)는 (가)의 작성에 참여한 학생이 시청 누리집에 게재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가 (가)의 작성에 참여한 학생이 시청에 게재한 건의문이라는 것, 그리고 화자 융합지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의 정보가 (나)의 건의문에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건의문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글임을 인지하자.

(가)

지역 주민들의 ○○숲 공원 이용에 대한 보고서

I. 조사 동기 및 목적

생태 탐방 명소로 알려진 우리 지역의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숲 공원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II. 조사 계획

- 조사 대상 : □□시 주민 ◇◇명
- 조사 기간 : 20××.03.01. ~ 03.14.
- 조사 내용 : ○○숲 공원 이용 현황, ○○숲 공원에 대한 인식

III. 조사 결과

1. ○○숲 공원 이용 현황

조사 대상 중 지난 1년간 ○○숲 공원을 이용한 주민의 비율은 18%에 그쳤다. 또한 △△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숲 공원의 전체 이용객 중 76%가 외부 방문객들이었으며 그들은 대부분 생태 탐방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최근 ○○숲 공원을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의 수는 13%p 증가한 반면에 지역 주민의 수는 10%p 감소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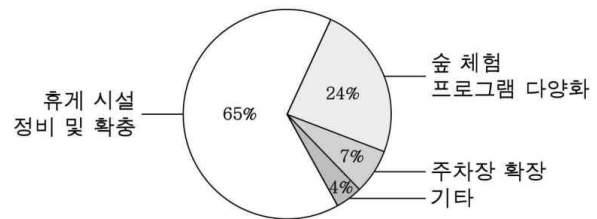
2. ○○숲 공원에 대한 인식

가. ○○숲 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원의 가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62%가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23%가 소득을 증대해 주는 경제적 가치를, 15%가 수백여 종 수목이 자생하는 곳으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나. ○○숲 공원 개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의 8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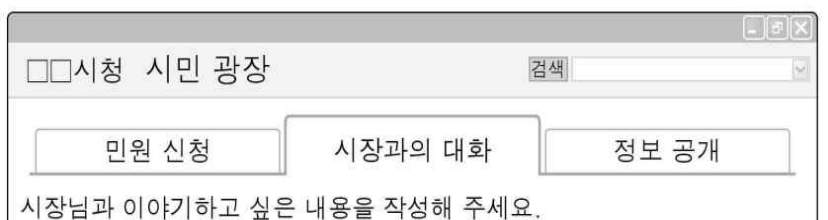
IV. 결론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숲 공원의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62%에 이르렀으며, ○○숲 공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65%는 휴게 시설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 [A]고 답했다. 이를 고려해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자료 독해>

(가)는 지문보다는 여러 개의 자료 독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파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읽어 본 후 그 내용이 (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독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다 외우려고 하는... 특이한 친구는 없기를 바란다.)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시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1-1)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1-2) 저는 ○○ 고등학교 지역 문제 탐구 동아리 학생입니다. 1-3) △△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숲 공원을 이용한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였

다고 합니다. 1-4) 이에 저희 동아리에서 ○○숲 공원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조사해 보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숲 공원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5) 그래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내용 정리〉 (I 반영) 자신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신문 보도 내용을 계기로 조사한 지역 주민의 인식(○○숲 공원의 개선을 희망)을 바탕으로 건의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1) △△ 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숲 공원의 전체 이용객 중 76%가 외부 방문객들이었습니다. 2-2) 외부 방문객들의 ○○숲 공원 방문 목적은 대부분 생태 탐방이기 때문에 공원 내 휴게 시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여기는 외부 방문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3-3) 그러나 저희 동아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숲 공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지역 주민의 65%가 공원 내 휴게 시설의 정비와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내용 정리〉 (Ⅲ-1, Ⅲ-2-(나) 반영) △△ 신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시 되지 않았던 공원 내 휴게 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부 방문객들은 문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 주민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 중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숲 공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지역 주민' 중 '65%'라고 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3-1) ○○숲 공원의 탐방로 곳곳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2) 하지만 너무 낮아 휴식하기가 어려운 벤치가 많습니다. 3-3) 이를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또한 공원 내부의 쉼터에는 현재 휴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5) 공원 탐방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쉼터에 휴게 시설이 마련된다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내용 정리〉 (Ⅲ-2-(나) 구체화) 2문단을 고려한다면 벤치는 공원 내 휴게 시설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며, 3-3에서 언급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일 것이다. 또한 공원 내부의 쉼터의 휴게 시설 마련은 3-3에서 언급한 확충이 필요한 휴게 시설일 것이다. 이러한 예시에 대한 언급은 건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3-5는 건의 내용이 수용되었을 경우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4-1) ○○숲 공원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4-2) 이는 지역 주민의 62%가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저희 보고서의 내용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4-3) 시장님께서 늘 우리 □□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 조속한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4-5) 감사합니다.

⇒ 〈내용 정리〉 (Ⅲ-2-(가) 반영) 건의 사항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신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독자의 노고에 대해 언급한 후, 자신들의 건의문에 대한 검토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42.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가)는 (나)와 달리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격식에 맞는 어투를 쓰고 있다.

⇒ (가)는 보고서이고, (나)는 시장님께 보내는 건의문이다.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은 (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나)는 (가)와 달리 주요 서술 대상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 서술 대상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③ 작문 목적을 고려할 때, (나)는 (가)와 달리 독자를 특정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나)는 독자를 시장님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가)는 그렇지 않다. 한편, (나)는 [3문단]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④ 작문 매체를 고려할 때, (가)와 (나)는 모두 필자와 독자 간의 즉각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즉각적인 소통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글의 유형을 고려할 때, (가)와 (나)는 모두 항목별로 소재목을 달아 정보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가)는 항목별로 소재목을 달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43. 다음은 학생이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의 'Ⅲ-1'에서 제시한 신문 보도 내용을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숲 공원 이용이 줄어들었음을 언급해야겠다.

⇒ (가)의 'Ⅲ-1'의 △△ 신문 보도에서 지역 주민들의 ○○숲 공원 이용이 10%p 감소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② (가)의 'Ⅲ-1'에서 제시한 신문 보도 내용을 근거로, 외부 방 문객이 휴게 시설의 부족을 ○○숲 공원의 문제점으로 여기 는 이유를 제시해야겠다.
⇒ 휴게 시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Ⅲ-2-(나)' 이다.
- ③ (가)의 'Ⅲ-2-가'에서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근 거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숲 공원의 후생적 가치를 중 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해야겠다.
⇒ 'Ⅲ-2-가'에서 조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의 62%가 후생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Ⅲ-2-나'에서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근 거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숲 공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해야겠다.
⇒ 'Ⅲ-2-나'에서 조사에 참여한 주민 중 85%가 개선이 필요 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가)의 'Ⅲ-2-나'에서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근 거로, ○○숲 공원 내 휴게 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는 것을 제시해야겠다.
⇒ 'Ⅲ-2-나'에서 휴게 시설 및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지역 주민이 65%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 하다.

44. 다음의 점검 기준에 따라 (가)를 점검한 결과가 적절하지 않 은 것은?

점검기준	점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목적을 조사 동기와 관련지어 제 시했는가? ⇒조사 동기는 △△ 신문의 보도 내용이었으 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생각으로 조사하 고자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계획에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밝혔는가? ⇒조사 계획에서 조사 대상은 □□시 주민 ◇ ◇명, 조사 기간을 20××.03.01. ~ 03.14. 으로 밝히고 있다.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하였는가? ⇒(가)-2의 제목은 ○○숲 공원에 대한 인식인 데 하위항목이 ○○숲 공원에 대한 인식, ○ ○숲 공원 개선에 대한 인식이므로 위계를 고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점검 결과에서 ×라고 하고 있으니 적절하지 못하 다.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그래프를 사용했는가? ⇒ '다양한'이라는 표현은 '다수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에는 하나의 그래프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데 × 라고 하고 있으니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문헌 항목을 설정하여 보고서에 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모두 명시했는 가? ⇒ 참고 문헌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가 적절하다.	×⑤

45. <보기>는 [A]의 초안이다. <보기>를 [A]와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숲 공원의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62%에 이르렀으며, ○○숲 공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65%는 휴게 시설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수정 사항 >—

(새로운 내용)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숲 공원의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62%에 이르렀으며, ○○숲 공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65%는 휴게 시설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고려해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① 하나의 긴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기 위해
⇒ 하나의 문장을 여러개로 나누고 있지는 않다.
- ② 내용 순서의 조정을 바탕으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 새로운 내용과 삭제된 내용을 고려하면 내용의 순서를 조정하고 필자의 견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조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 삭제된 내용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니다.
- ④ 보고서에 사용된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 추가된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가 아니다.
- ⑤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를 수정하기 위해
⇒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